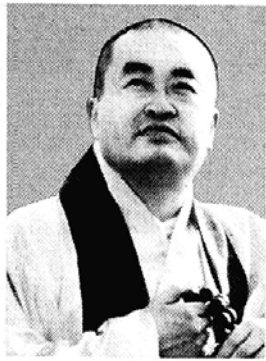


### “고국품서 여생 편히 지냈으면...”

김희로씨 석방주역 삼중스님



“좋았겠느냐”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80년부터 20년 가까이 서명과 석방단원서 제출, 편지교환, 노모 방문 등 김씨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온 삼중스님은 이제 석방이후 김씨의 한국 생활도 아낌없이 후원할 계획이다.

삼중스님은 “모든 여생을 부처님과 자신만을 믿고 살겠다는 김씨의 마음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후원에 주고 싶다”며 김희로씨의 출감을 맞기 위해 1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희로씨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의 정성이 이룬 결실입니다. 그가 석방되어 조국의 품에서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재일한국인 차별에 분노해 일본인 아부자 2명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31년간 복역하고 7일 석방되는 김희로씨의 후견인인 삼중스님(자비사주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석방되는 날 까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자년에 세상을 떠난 김씨의 노모가 함께 이 석방을 보았으면 얼마나

### 국방부 호국원광사, 효자·열녀 시상



유영남보살이 장한며느리상을 받고 있다.

#### 장한며느리상 유영남씨

국방부 호국원광사(주지법사 이영우)는 8월22일 불교 5대 명절의 하나인 우란분절(음력 7월15일)과 효행전도주간을 맞아 ‘효자 효부 열녀 열부 시상식’을 거행했다. 부모에 대한 효행과 배우자에 대한 헌신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된 선남자 선여인을 포상함으로써 집사 단절되어 가는 민족전통 사상과 예절을 불교적 차원에서 신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장한며느리상’의 유영남(56) 보살 등 10명의 호국원광사 신도가 상패와 기념탄지를 수상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의 시어머

니를 기쁜 마음으로 극진히 봉양해 온 유영남보살은 “자식된 도리를 한 것 뿐인데 이런 상을 받다니 부끄럽다”면서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처럼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한 아내상’을 받은 정연이(66) 보살은 13년간 병석에 누운 남편을 간병했으며, 홍복임(68) 박계숙(65) 김동지(60) 박귀순(68) 맹부섭(60) 류계화(77) 보살은 20~40대 때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와 손자들을 뒷바라지 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또 주시후(47) 이재한(45) 거사는 암으로 투병중인 부인들을 수년간 극진히 보살피 ‘장한 남편상’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

### “소외청소년 프로그램 강화”

목동 청소년회관 새관장 경륜스님



“사회와 학교에서조차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생각입니다.”

8월 21일 목동청소년수련관 제5대 관장에 취임한 경륜스님(석불사총무)의 말이다.

11년 전 목동지역 청소년의 복지와 포교를 위해 문을 연 목동청소년수련관은 하루 1800~2000명의

청소년이 내방하는 연이은 인원 60만명 규모의 매머드급 청소년시설. 청소년 여가 문화활동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과 고민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지역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시설미비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컴퓨터 사물놀이 등의 교양문화 특활프로그램을 인근 중등학교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목동청소년수련관에 근무를 익혀온 스님은 “이같은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포교를 펼칠 계획”이라면서 “前 관장스님들이 전개했던 사업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opia.com)

### 교차로

#### 일 광명회 초청발아 강연



보광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스님은 8월27일 일본 간사이 동향 호텔에서 (재)광명수양회가 주최한 근세 일본의 대표적 열 불실천가 변영성자(弁榮聖者) 80주기 기념문화강연회에서 ‘현대사회와 열불행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 군승 허계수려회



이희용 육해공군공군사령관은 14~16일 제주도 이시돌 수련관에서 ‘21세기 새로운 천년, 신세대를 위한 포교이념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실천 ‘수행’이란 주제로 군승 122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허계수려회를 개최한다.

#### 정려스님 초청 강담회



성광 육해공군예비역군법사단 단장은 8월 오후7시 서울 화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정려스님 초청 강담회를 개최한다. (02)737-7277

####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받아



권노갑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은 8월27일 동국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동창회 조직 활성화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국립사 요사채 상량식



지방 능인선원장 스님은 16일 오후1시 삼각산 국립사 산신제 및 요사채 상량식을 거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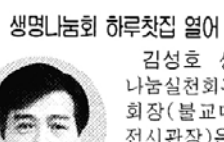
#### 동국대 사회교육원 특강



목정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1일 동국대 문화관에 예술극장에서 거행되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입학식에서 ‘자아와 여래상’을 주제로 특강한다.



성제 총복 영동 반야사 주지는 5일 오전11시 석굴암주지 증상스님을 증명법사로 초청한가운데 종합수련센터인 백학루 기공식을 거행한다. (0414)742-7722



김성호 생명나눔실천회후원회장(불교미술전시관)은 7일 오전10~오후7시 서울 조계사 건너편 썬더방에서 인간방생을 위한 하루차집을 연다. 김지연 기자

### 송석구 동대총장 평통 종교위원장에 법혜스님은 간사말아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8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법혜스님은 중앙상임위원 겸 종교분과위 간사에 임명됐다.

종교분과위 위원은 6대종교 지도자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직자가 아닌 재가 신도가 종교분과위원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석구 총장은 “범 종교간 공동체와 각 종단별 개별과제를 검토하겠다. 또 범종교간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상을 극복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론 밖으면 수행도 쉬워요”

동국대 수석졸업 원파스님



국내 최초로 7학기 만에 3개 전공을 이수, 3개의 학위를 받

으며 수석으로 졸업한 학인스님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원파스님(96학번). 스님은 신학 외에 불교학과 인도철학을 복수전공해 8월27일 동국대 9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수석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라는 원파스님은 “불교가 신앙적으로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고 싶었고 편견을 버리기 위해 3가지 학문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가을학기부터 대학원에서 불교논리학을 전공할 계획이다.

27일 동대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00명, 석사 337명, 박사 54명, 최고 경영자 과정 128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지연 기자



### 해제... 만행

“호방하게 읊조리며 푸른 산기운 속을 내려 오나니/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두고 싶지 않네/ 누군가 하산(下山)의 뜻 묻는다면 / 누더기 한 벌과 지팡이를 들어 보이라.”

((감산운와기담(感山雲臥紀談)중의 출산승(出山僧))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경(死境)을 넘은 다음 산(자기 자신)에서 내려오는 이의 넉넉한 심정을 읊은 시다. 지난 5월29일 결제에 들어간 전국 77개 선원 하산거 대종 1천6백40명(전국선원수좌회 집계)의 수좌스님들이 8월 25일 용맹정진을 마치고 해제했다. 사진은 인천 용화선원에서 정진한 용우사, 위봉사, 문운사 중앙선원, 회통사 비구·비구니스님들이 하산하는 모습. 이날 용화선원 조실 송담스님은 “인자가 끝났더라도 최상승의 수행법인 화두 참구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글=김재경·사진=고영배 기자

### ■ ‘자랑스런 지하철인’ 대상받은 김용환 거사

###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했어요”

독실한 불자로 서울지하철법우회 활동에 앞장서 온 서울지하철공사 신정차량사무소의 김용환씨(55)가 8월31일 ‘자랑스런 지하철인’ 대상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지하철인’상은 1만1천여 명의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중에 업무 수행능력, 대인관계, 성실성, 도덕성, 청렴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사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하철공사 종사자들에게는 최고의 상으로 올해가 3번째.



김용환씨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일해 왔을 뿐”이라며 “개인의 기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땀흘려 일하는 정비차량 사무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4년 공해 1기로 철도청에 입

사해 내식구 살아가기에 빠듯한 박봉에도 ‘서울시민 발, 서울시민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속에서 지켜왔다. 김용환씨는 “지하철 차량 한 량에 7만8천6백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차량과 전동차를 정비하는 데는 숙련된 기술과 투철한 직업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기술자를 우대해 주는 사회적인 풍토가 정착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했다. 김용환씨는 8월31일 포상장과 기념품 수상과 함께 부정비징에서 과장으로 1계급 특진했다. 도필선 기자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 대원불교대학

통신·축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 2.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범패의식(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 학년	1 학기 (16주)	2 학기 (12주)
1 학년	◇ 불교경전의 이해 ◇ 초기 불교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불교상용 의식
	◇ 화엄사상 ◇ 구사론(아비달마)	◇ 중국 불교의 이해 ◇ 불교상용의식 실습
2 학년	◇ 부파 불교의 이해 ◇ 대승기신론	◇ 밀교학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 한국 불교의 이해 ◇ 선사사상	◇ 천태사상 ◇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 3.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봉수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학장)

####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 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 수시접수가능

-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 제천 묘암암 (0443)653-3249
-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 ▶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 ▶ 하동 도림사거사암 (0595)882-4585

#### 6. 특전사항

- ◇ 법사교시 경우 법사호 수여
-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